

VD Special cluster

벤처인이
함께 엮는
클러스터
—오—프—닝



클러스터는 저축통장이다

위험 부담률을 줄이고
안전 보장률을 높이는
튼튼한 재정후원자이다

벤처인에게 클러스터는 Venture Korea 2004다

어제의 불황을 떨쳐내고 내일의 신명나는
경제 도약을 꿈꾸는 희망과 축제의 장 -
새싹벤처와 리딩벤처, 대기업과 벤처기업,
세계속의 벤처기업을
하나로 엮는 공동사업 실현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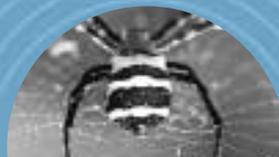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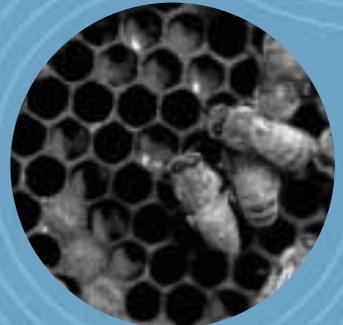


클러스터는 포도송이다

속이 짝 찬 낱알들이
단단히 결집하여 달콤한
맛을 내는 수확물이다

클러스터는 거미줄이다

씨줄날줄 튼튼하게 줄을
엮어 유연하면서도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함께할수록 더욱 커지는 힘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과일이나 송이처럼 비슷한 것들의 집단이나 덩어리'를 일컫는다.

'세계는 지금 클러스터 열풍'이라고 할 만큼 클러스터는 관련 기업 및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화두이다.

함께할수록 그 힘이 더욱 커지는 클러스터, 생활 속의 클러스터를 만나보자.

클러스터는 퍼즐이다

하나의 조각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것과 함께함으로써 완성된다



클러스터는 자일이다

잠재된 위험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 서로를 연결해 묶는 보호장비이다



클러스터는 맥가이버칼이다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을 통합시켜 그 효율성을 높인다



클러스터는 공생이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너와 나의 생존전략이다

벤처인이
함께역하는
클러스터
테마정보

지식 창출과 기술 공유의 場

세계화가 반드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기업집중과 유통집중을 통해 가시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을 때, 중소기업도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간 분업화를 확대·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란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계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21세기형 산업정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클러스터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개념에서 탈피, 수평적 관계로 형성된 지식창출과 지식이전의 산업네트워크이다. 그러므로 기업간 지식의 이전·공유라는 상호신뢰 속에서 프랜차이즈를 형성하고, 동일 목표로 재조직될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1,

기업끼리 어깨동무, 지역클러스터

클러스터 기업간 지리적 집중 혹은 응집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지역클러스터는 지리적 응집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약과 지역 구성원간 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 업종의 협회나 기관 등에서 회원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클러스터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낮은 교역비용은 글로벌화와 전문화된 클러스터를 촉진시켜 기업들의 재집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클러스터는 주로 기존 전통산업단지를 토대로 형성되며, 협회가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지역클러스터를 일궈낸 이탈리아 신발클러스터가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천의 요업, 충무로·강남의 영화산업, 부천의 문화산업 등이 집중과 응집을 통해 지역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지역클러스터의 hidden card
단지화된 기업들의 집중 + 기업간 신뢰회복 + 브랜드화 등 협회의 단일화 노력 = 고부가가치 생산기지로 특화된 이탈리아 신발클러스터

1+1,

우리는 친구, 기업클러스터

대기업 주도의 기업클러스터는 특정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클러스터의 특징은 중간재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상호협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대개 자동차, 통신시스템 등 대형조립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클러스터,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등이 있다. 특히, 도요타클러스터는 도요타시에 있는 본사와 7개의 조립공장 및 도요타중앙연구소, 시 근처에 있는 5개의 조립공장, 가까운 나고야의 도요타공대, 인근 아이치현의 5만여 개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은 일단 부품 공급을 수월하게 하였고, 가장 싼 수송비로 제시간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도요타의 그 유명한 'Just In Time(적기공급체계)'이 가능한 이유이다. 수송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도요타클러스터의 힘은 같은 지역 안에서 잦은 접촉으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해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상호보완을 이뤄내는 데 있다.

● 도요타클러스터 success point
 도요타시의 형성 + 연구소·대학과의 지속적 교류 + 지역내 기업과의 정보·지식교류 = 세계 59위 경제주체 도요타자동차 완성

글로벌 필살기, 혁신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는 생산물시장에서 생산비 절감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목표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지역클러스터와 다르게 생산물시장에서 경쟁기업간의 혁신과 지식이전을 공간개념으로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혁신클러스터는 대학·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 연계를 통해 구성되고 운영된다. 바이오, 나노, IT 등 지식집약적인 신산업 부문에 적합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은 각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샌디에이고의 바이오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덕밸리가 혁신클러스터의 최적 조건지로 주목받고 있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일관된 창업 유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준다면 혁신클러스터는 빠른 속도로 조성될 것이다.

● 대덕밸리의 spotlight
 연구소의 30여 년 축적된 연구성과 + 지역 800여 벤처기업의 핵심기술 + R&D 특구 지정 등 정부의 도움 = 대한민국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탄생

1+1+1,

3+α,

클러스터의 학습목표, 실리콘밸리

산업클러스터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 교류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집적지이다. 50년대 이래 급성장한 미국 실리콘밸리가 산업클러스터의 이상적인 모델로 손꼽히는데, 실리콘밸리의 경우 산-학-연 구성주체 모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창출에 힘쓰며 글로벌화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무 것이나 한곳에 모인다고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관련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이되 이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 실리콘밸리의 예처럼 기업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기대효과를 곧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될 때 고도로 발전한 클러스터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 실리콘밸리의 check point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 기업 상호간 경쟁과 신뢰 + 연구소·대학과의 연구공조 = 한국형 실리콘밸리